

## 핵 시대의 종교문화읽기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이래, ‘핵’은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힘을 상징해왔다. 핵은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힘을 인간의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평화적’으로 잘 이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문명의 발달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무한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다. 종말에 대한 암울한 예상과 놀라운 풍요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한국인 대다수의 마음속에서 별다른 모순 없이 공존해왔던 것이 핵을 둘러싼 최근까지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사고 이후로 ‘핵’과 관련된 현대인들의 인식이 격렬히 요동치게 되었고, 한국사회에서는 ‘핵’을 둘러싼 극심한 혼란과 불안,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핵에너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을 통해 다양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지만, 단지 과학적 설명만으로는 이러한 복잡다단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수립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핵’의 엄청난 힘, 그리고 그 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및 이를 둘러싼 갈등 등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현대세계에서 인간은 거의 모두가 핵에너지의 잠재적 영향권 아래 들어가 있지만, 핵에너지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은 매우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방사능에 피폭될 때에도, 인간은 방사능을 시각이나 후각 등 감각을 통해 파악할 수 없다.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시각화할 수 없고 정체를 알기 힘든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종종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느껴왔다. 1945년 미국 뉴멕시코에서 실시된 원폭실험의 별칭이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트리니티(Trinity)’였다거나, 1974년 인도에서 실시된 핵폭발 실험이 ‘미소 짓는 부처(Smiling Buddha)’로 지칭되었던 것은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엄청난 힘(핵에너지)에 대한 인간의 감정적 반응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원자로가 되어버린 후쿠이(福井)현 쓰루가(敦賀)시의 고속중식로를 지칭하는 ‘몬쥬(もんじゅ)’라는 이름도 불교 문수보살의 일본식 발음이라는 점도 무심히 넘어가기 어렵다. 핵의 엄청난 힘을 표현하기 위해 초창기 미국의 핵물리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관계자들은 종교적 은유들을 사용해왔으며, 나아가 핵과 관련된 각종 사안들에서 이른바 종교적 성격이 드러났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종교학자, 신학자, 과학자로 구성된 발표자들이 ‘한국사회에서의 핵’과 관련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함의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핵’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묻고, 핵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서 발견되는 ‘종교적 성격’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발표자들은 핵과 욕망, 핵의 기억, 핵 정책의 변화, 핵의 종말론, 핵발전 담론과 구원, 여성주의와 핵 담론 등 다양한 주제들을 탐구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사회의 ‘핵’에 관한 태도가 형성되어온 역사와 구조들을 살피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오늘날 ‘핵’에 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와 핵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중요한 영역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앞으로 계속될 연구의 출발점일 뿐이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것과 같은 여러 분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 2015 상반기 정기 심포지엄

1. 주제: **핵 시대의 종교문화읽기**
2. 일시: **2015년 6월 20일(토)**, 오전10시30분~오후5시40분
3.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제1강의실
4. 공동주최: 한국종교문화연구소 ·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6. 발표순서

**10:10~10:30** 접수

**10:30~10:40** 개회 및 개회사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소장)

**10:40~11:30** 제1발표

**핵에너지의 공포와 매혹 : 한국인의 핵 경험과 기억의 정치**

발표: 유기쁨(한국종교문화연구소)

논평: 고건호(한국종교문화연구소)

**11:30~12:20** 제2발표

**탈냉전기 한국 핵 발전과 안전 담론의 아포리아**

**: 안전지대 구획과 사회적 배제의 공간적 구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발표: 유승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논평: 김민아(서울대학교)

**12:20~13:00**

점심식사

**13:00~13:50** 제3발표

**핵무기는 어떻게 핵발전소가 되었나?**

**: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미국의 핵 정책 변화**

발표: 박상준(서울대학교)

논평: 심형준(서울대학교)

13:50-14:40 제4발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본 핵개발 담론**

발표: 김태연(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논평: 최순양(감신대학교)

14:40-14:50

중간휴식

14:50-15:40 제5발표

**진보의 관념과 구원의 희망 : 원자력 낙관주의의 종교효과를 중심으로**

발표: 정용택(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논평: 전철(한신대학교)

15:40-16:30 제6발표

**핵과 욕망: 과학, 테크놀로지, 종교 사이**

발표: 김윤성(한신대학교)

논평: 문만용(카이스트)

16:30-16:40

휴식 (장내정리)

16:40-17:30

종합토론

17:30-17:40

폐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소장)

<<발표요지>>

**1. 핵에너지의 공포와 매혹 : 한국인의 핵 경험과 기억의 정치**

발표: 유기쁨(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

1945년 7월 16일 미국 로스앨러모스에서 인류 최초의 핵 실험인 '트리니티(trinity)'가 성공한 이래 인류는, 나아가 지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른바 핵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핵 시대의 인간은 모두가 핵에너지의 잠재적 영향권 아래 들어가 있지만, 핵에너지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은 매우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감으로 파악할 수 없는 미지의 힘인 핵에너지의 영향력을 신체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피폭자들'이다.

핵 시대가 열린 1945년에 이미 한국인들의 핵 경험이 시작되었다. 곧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원자폭탄에 피폭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경험은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적 기억이 되지 못하고 개인의 기억으로, 이른바

개인이 감당해야 할 '업'으로 잊혀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으로/공식적으로 기념되는 장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핵 경험 및 그에 대한 기억은 일관되게 배제되면서 드러나지 않았다. 그들의 핵 경험과 기억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업'으로 희석되어왔을 뿐이다.

이러한 외면과 배제의 경향은 단지 원폭피해자들에게 국한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는 피폭의 기억이 일관되게 배제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핵'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기억되는 것과 사회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기념되는 것이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핵에 관한 사회적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도 기억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 나는 한국인의 핵 경험과 관련해서 기억의 정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 2. 탈냉전기 한국 핵 발전과 안전 담론의 아포리아

### : 안전지대 구획과 사회적 배제의 공간적 구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발표: 유승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상임연구원)

그동안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핵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믿음은 핵에너지를 담은 안전한 '그릇'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다. 이때 핵을 담은 그릇이란 단순히 기술적 측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핵이 초래하는 위기에 대한 인간의 대응능력 전반 또는 그 대응능력에 대한 신뢰를 뜻한다. 즉, 애초에 핵에너지는 파괴적이지만 관리 가능한 힘으로 상상됐으며, 구원 가능한 파국의 이미지로 형상화돼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의 '꺼지지 않는 불'이 언제 건물을 뚫고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출구 없는 전 지구적 파멸'의 공포로 확장돼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파국과 구원을 손쉽게 화해시키고자 하는 안전 담론이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 핵에너지는 기술로 안전하게 통제될 수 있으며 국가와 시민의 삶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사회기술적 상상' 위에서 수용돼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환경운동의 영향으로 개발주의적 발전전략과 결합된 핵 정책에 대한 비판 담론이 형성되고 핵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왔으나 핵발전소 확대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핵발전소의 확대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믿음은 한 국가 안에 그리고 한 지역 그것이 적용되는 지역과 배제하는 지역을 나누는 힘으로 작용했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한국 핵발전소 정책 관련 문건들의 담론분석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안전에 대한 믿음'을 규명하고, 그 믿음이 핵시설을 둘러싼 안전지대 구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안전 담론이 만든 지리적 경계는 사회적 배제의 경계이자 사회적 갈등의 폭발 가능성을 담은 그릇으로 구성돼가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 3. 핵무기는 어떻게 핵발전소가 되었나?

###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미국의 핵 정책 변화

발표: 박상준(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박사과정)

핵폭탄을 실제로 사용한 국가는 지금까지 미국밖에 없다. 물론 핵폭탄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그래서 2차 세계 대전 전후 미국의 핵 정책 변화는 주요한 연구 주제다. 전 세계가 그 변화에 반응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핵의 평화적 이용을 돕는다는 미국의 정책으로 1959년 한국 핵반응 장비가 미국에서 도입되었다. 그 이후 한국에 핵발전소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핵 정책은 한국 정부의 핵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 글에서는 2차 대전 시기 핵무기 개발에 참여한 핵심 인물 중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과학자문관이던 바네바 부시(Vannevar Bush)에 주목한다. 그는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7월에 《과학 : 끝없는 프론티어 *Science: The Endless Frontier*》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방안, 핵무기 개발에 기여한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전후 미국의 핵 정책과 과학기술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제안을 담고 있다.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이 끝나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사라지자, 미국은 핵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을 제안했다. 1953년 12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를 발표했다. 하지만 1954년 3월 미국은 핵실험을 시행하면서 이 제안이 이중적인 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 국제적으로는 다른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대신 핵발전 기술을 전수했다. 반면 미국 내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 핵무기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핵에너지의 오용은 곧바로 인류의 종말이라는 시나리오가 소설과 영화에서 자주 언급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에 굳어져 있다. 핵 때문에 세계가 끝장날 수도 있다는 2차 대전 전후 상황에서 바네바 부시의 보고서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제안했다. 이 글에서는 부시의 보고서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문을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미국의 핵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한다.

#### 4.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본 핵개발 담론

발표: 김태연(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HK연구교수)

핵에너지의 가공할만한 파괴력은 모든 살아있는 것을 멸절시키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종말론적 이미지로 다가온다. 그러나 한국의 핵에 대한 기억과 그 상상의 코드는 암울함보다는 전쟁의 승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믿음과 더욱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편향성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핵에너지에 대한 담론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지점이며, 본 발제는 이를 목표로 한다. 왜냐하면 여성주의적 입장은 군사주의, 경제발전 중심의 남성주의적 논리, 가부장적 폭력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하며 제목소리를 낼 수 없는 억압된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발제는 첫째, 한국에서의 핵 개념의 문화적 코드들을 생각해본다. 둘째, 신문자료를 통해 드러난 핵개발 담론의 원형적 논리에 대해 짚어본다. 셋째, 핵개발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담론을 통해 한국사회의 핵개발 담론의 문제점과 그 과제를 성찰해본다.

## 5. 진보의 관념과 구원의 희망: 원자력 낙관주의의 종교효과를 중심으로

발표: 정용택 (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상임연구원)

이 글은 194~50년대 일본 방사선의학의 개척자이자 피폭 경험자로서 전후 반전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다수의 신앙수기를 남긴 저술가인 나가이 다카시(永井隆, 1908~1951)의 삶을 돌아보는 데서 논의를 시작한다. 원자력에 관해 그가 보여준 모순적인 태도를 후쿠시마 이후에도 여전히 원자력발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맹목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징후적인 사례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나가이가 그랬듯이 오늘날 대다수의 평범한 한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원자력을 둘러싼 기술진보 및 문명발전의 비가역성에 대한 믿음, 다른 전력생산방식에 비해 원자력이 경제성이 높다는 과학적 신념,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위험 및 사고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은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에 가까운 것이다. 동시에 원자탄 피폭이나 방사능의 노출이 결코 인간의 존재론적 본질이나 공동의 운명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진 못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종교적 확신 또한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후쿠시마 이후의 신학”이라는 문제설정을 통해 원자력과 핵이라고 하는 사건이 인간 존재 자체의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총체적 사멸 가능성을 드러낸다는 점을 한나 아렌트, 한스 요나스, 귄터 안더스 등의 논의를 통해 철학적·신학적으로 고찰해보고, 나가이 이러한 인간의 총체적 사멸 가능성 앞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낙관적 인식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여러 실증적 통계 자료들을 통해 검토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를 가능케 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종교효과)의 메커니즘을 비판적 담론분석의 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6. 핵과 욕망: 과학, 테크놀로지, 종교 사이

발표: 김윤성(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

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까? 핵은 우연한 발견의 산물일까, 아니면 필연적인 결과물일까? 핵의 발견과 활용은 과학-테크놀로지의 전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나의 출발점이다.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을 이해하려는 지적 욕망과 자연을 활용하려는 도구적 욕망을 추구해왔다. 과학은 종교가 오랫동안 비밀스런 지식으로 감추어 두었던 존재의 본질, 물질의 속성을 밝혀내려 해왔고, 마침내 원자 속 핵을 구성하는 입자들과 이들 속에 숨겨진 에너지를 발견했다. 핵에너지의 발견은 종교의 자리를 이어 받은 과학을 추동해온 지적 욕망, 즉 존재의 본질을 향한 비의지식적 욕망의 필연적인 도달점이다. 한편, 테크놀로지는 과학적 지식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그 자체의 방식으로 자연으로부터 유용성을 끌어내 활용하려 해왔다. 테크놀로지는 핵에너지가 발견되자 이를 바로 포섭하였고, 마침내 물질로부터 유용한 용도(발전)와 파괴적 용도(폭탄) 어느 쪽으로도 쓰일 수 있는 에너지를 끄집어내 데 성공했다. 핵에너지 활용 테크놀로지는 비의지식에 근거해 어떤 물질

을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변화시키려는 욕망, 즉 연금술적 욕망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그런데 핵에너지의 이러한 발견과 활용에는 다시 또 하나의 욕망이 들러 붙는다. 바로 초월의 욕망이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장구한 시간성을 본질로 하는 핵쓰레기는 인간적 시간, 현재적 시간을 넘어 미래를, 영원을 선취하려는 초월적 욕망의 구현물이다. 또한 생겨나자마자 그 자체로 독보적인 초월적 기표가 되어버린 핵폭탄은 고만고만한 권력들이 충돌하는 일상의 지평 위로 우뚝 솟은 막강한 권력을 구현하려는 초월적 욕망의 구현물이다. 이와 같이 비의지식적 욕망, 점성술적 욕망, 초월적 시간과 권력의 욕망을 키워드로 하여 핵발전과 핵폭탄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과 이미지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을 해보려는 것이 이 글에서 내가 하려는 작업이다.

• 오시는 길

**지하철**  
SUBWAY

4호선 : 이촌역 2번출구 방향 '박물관 나들길'⇔박물관 서문

**시내버스**  
URBAN BUS

간선버스

▶ 400번 서빙고동 - 서빙고역1번출구 -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 이촌역 - 용산세무서 - 용산공고

▶ 502번 이수교 - 서빙고역 -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 이촌역 - 용산세무서 - 용산공고